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宜洛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12世祖 嘉善大夫 平安監司公 諱：澤(휘：택) 墓碣銘 (上)



▶ 嘉善大夫 平安監司公 諱澤墓所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선영하



▶ 묘표석

원외랑(員外郎)① 심서견(沈瑞肩)이 그 숙부 감사공의 일생동안 한 행의(行儀)②와 벼슬살이한 시종(始終)을 가지고 한양 조경(趙綱)에게 와서 명(銘)해 줄 것을 빌고 이어서 한씨 부인의 말을 전하였다.「집사(執事)께서는 저의 남편과 40년을 형제처럼 지내온 것을 알고 있으니 제 남편의 평생을 잘 아는 사람은 집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불행하게도 뒤를 이을 자식이 없고 또 제 남편의 무덤에는 풀이 이미 해묵었습니다. 만약 지금 未亡人이 살아서 돌 하나를 무덤 옆에 세워두지 아니한다면 제 남편이 힘써 행한 사업이 사라져 없어져서 세상에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감히 제 남편의 영혼을 빌려 집사를 괴롭히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다만 집사께서 명을 써주신다면 이것이 어찌 한갓 어린 손자들만 감싸주는 일이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반드시 저승에서 지기(知己)③의 고마움을 통감(痛感)④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반도 듣기 전에 눈물이 흘러내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감사하여 회답하였다.「제 나이 70세가 가까운데 정신도 삼분의 일이 소모되었습니다. 통상적인 편

지나 이야기 같은 것도 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비석에 새기는 문자이겠습니까 그러나 차마 어찌 제 친구가 죽었는데 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상고해 보니

공의 이름은 택(澤)이요, 字는 시보(施甫)이다. 그 시조는 靑松 사람이다. 고려 때부터 조선 초에 이르도록 이름난 공경(公卿)이 뒤를 이었다.

증조부의 이름은 의검(義儉)인데 의빈부 경력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 되었으며 조부의 이름은 웅(薩)인데 절충 장군을 지내고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대형(大亨)인데 성균관 進士였으나 일찍 죽었다. 참판에 추증되고 청주 한중겸(韓重謙)의 딸에게 장가들어 공을 낳았다. 공의 형제가 외가에서 길러졌는데 키우고 가르쳐서 26세에 성균관의 진사가 되었고 필법(筆法)이 당시를 지배했다.

甲子(1624)년에 선발되어 금오랑(金吾郎)⑤이 되었으나 그가 좋아서 한 것은 아니었다. 얼마 뒤 利仁의 독우(督郵)⑥가 되고 정묘(1627)년에 참봉으로 승진했다. 戊辰(1628)

년에 사십시(司贍寺)에서 전중(殿中)으로 옮겼다. 이듬해 정읍현감(井邑縣監)이 되고 임기가 차려고 할 때 인수(印綬)를 던지고 사임했다. 이듬해 서용되어 형조좌랑이 되어 겨울에 문과에 급제하니 그 해는 乙亥(1635)년이다. 丙子(1636)년에 예조좌랑으로 옮기고 부안현감(扶安縣監)으로 나가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己卯(1639)년에 예조좌랑에서 정언으로 옮기고 일을 논함에 참다운 간신(諛臣)⑦의 모습을 보였다. 이듬해 자리를 옮겨 사간원에 들어갔다가 호조정랑이 되었고 활리(漕吏)⑧들이 손을 못쓰게 하여 칭송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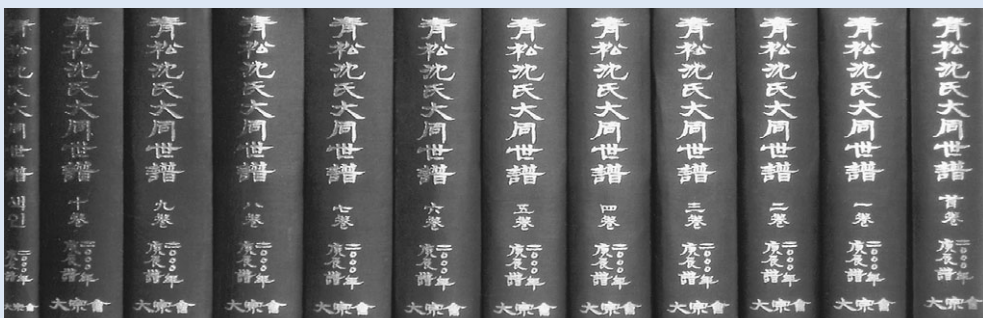
辛巳(1641)년에 정주목사(定州牧使)로 나가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부하를 통솔했고 은혜를 베풀어서 기민(飢民)을 구제했다. 그래서 이웃 고을까지 그를 본받았다. 壬午(1642)년에 형님이 안서사(按西使)가 되자 형제가 같은 지방에 근무하는 것이 꺼림직하다 하여 교체되어 조정으로 들어와 사성(司成)이 되었다가 곧 삼척(三陟)부사로 나갔다. 丁亥(1647)년에 군기정을 거치고 이어서 양주(楊州)목사, 장악원정, 필선(弼善)을 지낸 뒤 다시 사헌부로 돌아와 장령(掌令)이 되었다. 그리고 곧 예빈시정으로 옮겼다.

戊子(1648)년 가을에 의주(義州)부윤이 결원되자 비국(備局)⑨에서는 유장(儒將)⑩을 추천했는데 공이 첫째로 뽑혔다. 드디어 당상관에 승진하여 의주부윤이 된 뒤 만기가 되자 발탁되어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3년을 지내는 동안 때묻은 곳은 벗기고 가려운 곳은 긁어서 사람들로부터 호남(湖南)의 외어사(外御史)⑪라는 칭송을 들었다. 민정중(閔鼎重)이 그 실상을 조사해서 보고하고 또한 총부윤(摠府尹)을 겸임시켜 도민들의 요구에 응해줄 것을 청했다. 임금께서 승낙을 했으니 특이한 명수(命數)⑫라 할 수 있다.

甲午(1654)년에 좌수사(左水使)를 거쳐 승정원에 들어와서 좌부승지가 되었다. 겨울에 세 가지 일을 잘 처리한 탓으로 가선계(嘉善階)⑬에 승진하여 평안감사로 나갔는데 이것은 공이 평안도 지방의 일에 익숙하기 때문이었다.

→ 2면에 계속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CD롬 2개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과

CD롬(대동세보 전 내용과 시조 ~ 4세조 산소 동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 보급가격 : 22만원(CD롬 포함), 별도 구입(CD롬 : 20,000원 / 수권 : 40,000원)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동세보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宗보축쇄판, 手帖, 鬻지 포함) : 100,000원

『책자 강매』 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 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丙申(1656)년 봄에 북에서 청나라 사신이 온다는 소문이 있자 공이 평양을 떠나 정주(定州)로 가다가 풍기(風氣) ⑭에 감상(感傷) ⑮에 드니 좌우에서 말고삐를 잡고가지 못하게 말렸으나 듣지 아니하고 억지로 달려 만상(灣上) ⑯에 이르러자 하다가 병이 악화되어 도중인 곽산(郭山)에서 일생을 마쳤다. 부음이 이르자 임금께서는 크게 슬퍼하시면서 정원(政院) ⑰에 하교(下敎)하셨다.

「평안감사 심택이 국사에 급급한 나머지 몸의 병을 돌보지 아니하고 급히 달려가다가 도중에서 객사(客死) ⑱했으니 과인의 마음이 슬프구나. 그러나 또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은 아들이 없고 다만 조카 한 사람이 지금 적소(謫所) ⑲에 있는데千里에서 운구(運柩) ⑳하려고 해도 보호할 사람이 없으니 더욱 측은하구나.」

부조를 넉넉하게 하사하고 특별히 그 조카를 석방했으며 삼사에 명을 내려 상구(喪柩)㉑를 호송하게 하고 유사를 시켜 부전(膊奠)㉒을 하게 하니 다른 예에 비하여 후한 것이었다. 아! 공의 영혼이 이 때에 눈감지 않는다면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이해 윤5월13일에 용인현 산의곡(山義谷) 아래 해좌의 언덕에 안장하니 선대의 묘소 밑이다.

〈판중추부사 조경(趙綱) 지음〉

주(註)

- ① 원외랑(員外郎) : 낭관(郎官)의 후보. 후세에 와서는 낭중(郎中)의 아래. 주사의 윗자리
- ② 행의(行儀) : 한 일. 행동
- ③ 지기(知己) :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막역한 사이
- ④ 통감(痛感) : 뼈가 아프도록 간절하게 느낌. 깊이 감동함
- ⑤ 금오랑(金吾郎) : 임금의 호위대의 낭관, 즉 경호대의 분대장
- ⑥ 독우(督郵) : 지방감찰관. 찰방의 아랫자리. 漢代의 군수의 보좌관 순찰관
- ⑦ 간신(諫臣) : 임금의 잘못에 바른말로 폐지 또는 중지를 건의하는 사간원의 직원
- ⑧ 활리(滑吏) : 교활한 아전. 관장을 우롱 또는 이용하여 자기의 야욕을 채우는 교활한 관리
- ⑨ 비국(備局) : 비변사의 이칭. 나라에 일이 생기면 장관 이상

으로 구성하는 일시적인 군의 통설기관

- ⑩ 유장(儒將) : 문관 출신으로 국방을 담당하는 군의 책임자
- ⑪ 외어사(外御史) : 어사 아닌 어사. 지방 관장이 수탈을 일삼는데 비해 그 전습을 타파하고 어사와 같이 부정을 척결하는 데서 나온 말
- ⑫ 명수(命數) : 운명의 수. 즉 운
- ⑬ 가선계(嘉善階) : 종2품인 문무관원의 품계
- ⑭ 풍기(風氣) : 바람과 기운. 즉 기후, 또는 절기
- ⑮ 감상(感傷) : 감기가 들어 몸이 상함
- ⑯ 만상(灣上) : 포구. 항구도시. 여기서는 의주
- ⑰ 정원(政院) : 승정원
- ⑱ 객사(客死) : 객지에서 죽음
- ⑲ 적소(謫所) : 배소(配所) 또는 부처지(付處地). 즉 귀양살이하는 곳
- ⑳ 운구(運柩) : 널을 운반함. 즉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고향으로 운반하는 일
- ㉑ 상구(喪柩) : 시신이 든 관
- ㉒ 부전(膊奠) : 부조와 제사지내는 데 필요한 전물. 즉 제물

〈다음호에 계속〉

朝鮮後期 天才畫家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평전(評傳) 겸재(謙齋)에게 그림을 배우다 - ③

겸재가《해악전신첩》을 처음 그려내던 숙종37년(1711) 신묘에는 뒷날 영조(재위1725-1776)인 연잉군(延昞君) 음(음, 1694-1776)이 18세로 사옹원(司饔院) 도제거(都提擧)를 맡고 있으면서 즉석에서 수묵으로 산수 2폭, 난초 1폭, 국화 1폭, 매화 2폭 도합6폭을 그려 작은 향아리의 장식그림을 삼개 했다고 한다. (金時敏, [東圃集] 권7. 謹題御畫帖子後) 뿐만 아니라 이해에 숙종은 연잉군의 신선도를 보고 이런 제화시를 붙인다.

얼굴이 얼마나 흰하고 밝은가. 칼은 등뒤 칼집에 꽂혔구나.

첫 그림부터 절로 좋으나, 평일에 일찍이 가르치지 않았었네.

왕자가 그림 잘 그리는 것을 국왕이 칭찬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대부들이 그 그림을 보배로 여겨 진장(珍藏)하는 분위기이니 사대부가 그림 길로 나서는 것이 과거 다음으로 떳떳한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연잉군은 현재가 태어나던 해인 숙종 33년(1707)에 현재 종로구 통의동인 순화방(順化坊) 창의리(彰義里)에 창의궁(彰義宮)을 마련해놓고 이곳을 드나들며 같은 동네에 사는 겸재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겸재가 32세, 연잉군이 14세 때였다. 그 결과 연잉군이 이와 같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왕실측근 사대부사회에서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이었다. 이에 죽창은 더욱 현재를 겸재 문하로 보내서 그림을 배우게 하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죽창의 장모인 풍천(豐川) 임(任)씨 1656-1727)는 겸재의 증조부 정창문(鄭昌門 1565-1614)의 장인인 자산(茲山)군구 임정로(任廷老 1534-?)의 고손녀로 겸재와는 8촌 남매의 척분이 있었다.

풍천 임씨가 겸재보다 20세 연상이었으니 아마 현재는 어린 나이에 외조모 손에 이끌려 겸재택 사랑으로 인도되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을 듯 하다. 늦어도 풍천 임씨 환갑해인 숙종 42년(1716) 병신 이전이었을 것이다. 현재가 10세 겸재가 41세 때니 그 이전인 현재 8, 9세 때일 수도 있다.

현재 모친 하동정씨(1678-1744)는 곡구 정유점(1655-1703)의 무남독녀 외딸이었다. 곡구의 양자 정창동(鄭昌東, 1693-1764)이 곡구가 돌아갔을 때 겨우 11세였던 것을 보면 죽창은 일찍부터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래서 뒷날 심익창이 역적모의를 할 때 심정주는 전혀 이

와 무관하게 되어 공초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외가 집에서 태어나 외조모 손에서 키워졌다고 보아야 하는데 곡구(谷口)라는 정유점의 호를 통해 보면 그 집이 인왕곡 입구인 지금 옥인동 초입이었을 듯 하다. 이 사실은 겸재가 하양(河陽)현감을 지내고 와서 현재 옥인동 20번지 부근의 자수궁고 근처의 인왕곡으로 이사하고(1727)년 뒤 어느 때 사천이 현재에게 보낸 시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자네 휘둘러 뿌린 곳 보니, 무한한 미불(米芾, 1051-1107, 별호가 鹿門居士)의 세계일세.

어찌 처자를 두지 않아, 길가에서 방황하게 하나.

천년 동헌재(董玄宰, 董其昌의 號)와 한마을 정하양(鄭河陽, 鄭勳의 전임관직)을.

서로 베고 조석으로 상대하니, 가슴속에 옛 뜻이 자라난다.

분명 겸재가 하양현감을 지낸 뒤에 현재와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겸재는 숙종 46년(1720) 경자 12월 12일에 하양현감에 제수 되어 설을 친 다음 경종 1년(1721) 신축 정초에 하양으로 부임해 가서 6년 만기를 채



煙江雲山(연강운산)

우고 영조 2년(1726) 병오 4월(麥秋)에 상경하여 다음해 정미(1727)에 인왕곡으로 이사한다.

따라서 현재가 21세 되던 해인 영조 3년부터는 겸재와 현재가 한 마을에서 살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시절에는 풍속화의 시조인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祜, 1686-1761)도 겸재택과 수십보 떨어진 이웃에 살았다 한다. 겸재 서거 후에 관아재가 직접 밝힌 내용이다. 옮겨 보겠다.

「정공(鄭公)의 휘는 선(勳)이요 자는 원백(元伯)이며 겸재라고 자호하니 광산인이다. 어려서부터 한양서울의 북쪽동네 순화방(順化坊) 백악산(白岳山) 밑에서 살고 나역시 순화방에서 대대로 살며 공보다 10세가 어리니 내가 죽마탈 때 공은 이미 엄연히 관(冠) 쓴 사람(어른)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항상 공경하여 일찍이 너나들이를 한 적이 없다. …… 매양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면 나에게 보이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 집 곁으로 이사와서는 서로 수십보 가까이 떨어져 있었으므로 각건(角巾)쓰고 청려장 짙은

채 아침저녁으로 왕래하여 거른 날 없이 지금 30년에 이르렀으니 공의 일생을 알기로는 나만한 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겸재의 인왕곡 거주시기에는 진경시대를 대표하는 사대부 화가들인 겸재, 관아재, 현재의 사인삼재(士人三齋)가 모두 인왕곡 한 마을에 이웃해 살았다는 얘기가 된다. 어쨌든 현재가 인왕곡에서 태어나 살았으므로 당시에는 지금 경북고등학교 자리에 있던 겸재택과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다. 그래서 현재가 8, 9세 어린 나이 때부터 겸재에게 나가 배울 수 있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최근 강관식(姜寬植)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겸재는 숙종 42년(1716) 병신 2, 3월경에 관상감(觀象監)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教授. 종 6품)로 서사(筮仕, 음직으로 처음 관직에 나감) 했다고 한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제681책 영조 5년 3월 21일 을축초 참조) 이 해는 현재가 10세이고 현재의 외조모 풍천 임씨가 환갑(61세)이며 겸재가 41세 되는 해였다.

겸재가 <해악전신첩>으로 화명(畵名)을 조선은 물론 중국에까지 널리 떨치면서 그의 『주역(周易)』 실력과 천문학 실력까지 높이 평가돼 당시 좌의정이던 몽와 김창집의 천거로 특채 되었던 모양이다. 김창집은 겸재의 스승인 삼연 심창흡의 만형이었다. 이렇게 이 시기는 겸재택이거나 현재택에 경사가 이어져서 모두 행복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현재는 양가의 보살핌 속에 칭송과 격려를 받으며 착실하게 겸재 문하에서 화법수련의 기초를 다져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정국은 요동치고 있었다. 갑술환국(1694) 이래로 양시양비(兩是兩非)의 절충론을 주장해 일당(一黨)을 형성한 소론(少論)이 왕세자를 등에 업고 차차 정국을 주도하자 의리명분론을 강력히 내세우며 서인의 적통을 이어가는 노론이 이에 강경 대응했기 때문이다. 결국 숙종은 병신처분(丙申處分, 1716)으로 노론의 의리명분론을 인정해 소론의 발호를 막는다. 그래서 당시 노론 영수인 좌의정 김창집을 숙종 43년(1717) 정유 5월 12일에 영의정으로 승진시켜 정국을 주도하게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창집 일가의 보호를 받는 겸재의 관직생활은 탄탄대로를 걷는 듯 순탄하여, 초고속 승진을 계속하니 숙종 44년(1718) 무술 윤 8월 22일에는 조지서별제(造紙署別提, 종 6품)로 옮겨 임시직의 딱지를 떼고 숙종 46년(1720) 경자 2월 8일에는 사헌부 감찰(종 6품)로 영전한다. 이해 6월 8일 숙종이 경희궁(慶熙宮) 융복전(隆福殿)에서 60세로 승하하자 영의정 김창집이 원상(院相)이 되고, 우의정 이견명(李健命, 1658-1722)이 총호사(摠護使)가 되어 숙종을 장사지내고 왕세자를 보위에 올리니 이가 경종(재위 1721-1724)이다.

潤松文華 韓民族美術研究所 轉載


〈다음호에 계속〉

사단법인 한국언론인 연합회와 월간 정경뉴스에서 한국 브랜드를 빛낸 중소기업 12개 분야에 상을 주는데 이번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분야에도 시상하기로 결정하여 전북 완주 화산중학교(교장 심의두)가 학교로서는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다.

- ▶ 시상식 일시 : 10월 8일 오후 3시
- ▶ 장소 :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

【한국의 이튼스쿨을 꿈꾸는 심의두 완주 화산중학교 교장】

가난한 농민이 벗으로 평생 외골수로 고향을 지키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심의두 완주 화산중학교 교장, 그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 농촌학교의 폐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자율 중학교를 만들어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강남 대치동의 우수 학생들을 시골에 끌어와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다.



교장 심 의 두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와 월간정경뉴스가 공동선정한

제4회 "한국최고 브랜드대상"

전교생이 54명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학교가 이제는 서울 경기 충청 경상은 물론 제주에서까지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이젠 360명이 넘는 학교로 성장했고 입시철이면 수천명씩 몰려들어 중학교 입시 경쟁률이 무려 10대 1이 넘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경쟁률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최고의 교육열을 보인다는 서울 대치동의 우수 학생이 몰려들고 있고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려는 전국 최고의 인재들이 완주 화산중학교를 찾고 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토익점수가 900점대가 넘는 학생이 수두룩하고 동아일보와

MBC 등에서 실시하는 전국 초·중 영어 수학 학력평가에서 대상을 휩쓰는 학교를 만들어 냈다.

한국의 이튼스쿨을 꿈꾸는 그는 약 70억 원을 투자하여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췄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화산중학교는 일어 중국어 영어 원어민 교사는 물론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적 지도자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영어와 수학 수업을 다른 학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렸고, 한자도 2000자 이상을 터득해야 하며 철저한 자기주도 학습으로 승부해 전국 최고의 고교에 속속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 결과 심의두 교장

은 올해 한국일보가 주최한 '2008 대한민국 고객감동 그랑프리'를 비롯, 한국언론인연합회 주최의 '제4회 한국최고 브랜드대상'을 받으며 전국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면모는 이것만이 아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학으로 학교를 마치고 평생 자신의 고향인 완주 화산을 지키며 그 곳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진정한 농촌교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40년 넘게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특히 한번의 교육위원과 교육위원장을 역임하고 교육감 선거에 나선 결과 수많은 동조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동시에 갖게 됐지만 지역민들은 그가 일궈낸 성과와 교육에 헌신해 온 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6년전 위암 수술을 받고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던 그는 이제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고 말한다. 단 한가지, "국제무대를 넘나드는 지도자, 꼭 제 손으로 길러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한국의 미래를 밝게 하겠다"는 다짐을 제외하곤 말이다.

江都의 忠烈祠에 다녀와서

(12세조 諱: 諤 字: 士和 諡號: 忠烈)



충렬사 시제 제례광경
 ▷ 충렬사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원면 선행리 371 ▷ 향사일 : 음10월(중순에 丁字가 되는 날)

때는 11월 중순인데도 오늘따라 봄날처럼 따스하다. 우리 일행(大宗會 임직원)이 강화도 충렬사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30경인데 도착하고 보니 이미 먼저 도착한 참사(參祀)자들의 차량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벌써 도착해 있던 우리 일가분들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한다. 제례(祭禮)준비로 장내는 어수선하고 헌관 집사(獻官, 執事)들의 거동이 바빠졌다. 11시가 지나자 전원서립(叙立)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로 시작하여 제례가 시작되었는데 먼저 주벽(主壁)인 前우의정 김상옹(金尙容)의 三헌관이 제례를 마치고 다음으로 평안감사를 지낸 李相吉公, 그리고 12세조 심현(言見)공에 이르기까지 순차대로 진행이 되었다. 공은 충렬사에 29인의 위패를 봉안한 가운데 5위로 西2位에 배향되어 있다.

공은 安孝公의 7대손으로 9세조 수찬공(淮達源)의 증손이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공은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라는 직책도 버리고 구국의 일념으로 강화로 들어갔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江都가 함락되고 백성은 淸軍의 軍馬에 무참히 짓밟히고 살육 당했으며 아녀자를 희롱하고 물품을 약탈하는 수난을 당하자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참혹한 상황을 통탄하는 유소(遺疏: 임금께 올리는 글)를 쓴 다음 부인 宋씨와 함께 자결하

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자질이 있었고 커갈수록 더욱 그 자태가 의연하고 예사롭지 않았으며 재주가 남달리 뛰어나 글을 잘하여 여러 번 지방시(地方試)에 합격하였다.

장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시험삼아 후릉참봉(厚陵參奉)을 하였는데 근무를 함에 있어 하는 일마다 게으르지 안이하여 공은 그 특출한 공적을 인정받아 장차 옥천(沃川)과 풍덕(豊德)과 철원(鐵原)의 수령으로 부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 치적이 현저하였다.

공이 벼슬을 버리고 강도로 들어갔으나 끝내 강도가 청군에 함락되자 가묘(家廟)와 신주(神主)를 외딴곳에 묻어두고 손수 임금께 올리는 문서를 쓴 다음 의관을 정재하고 북쪽을 향하여 네 번 절한 다음 宋씨부인에게 말하였다. 『나라가 깨지고 집이 망하였는데 바위구멍에 숨어 설사 화를 면한 다해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 구차하지 않은가』하니 宋부인이 말하였다. 『지아비는 나라를 위하여 죽고 아내는 절개를 지키고 몸을 깨끗이 하여 죽어서 함께 가는 것을 실토 달갑게 여기는 바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조카 동구(東龜: 후에 贈, 大司憲)가 배를 갖다대고 피신할 것을 간곡히 권했으나 끝내 물리치고 부인은 목욕재계하고 옷을 갈아입고 함께 자결하였는데 그 얼굴이 지극히 평온해 보였다. 임금께서 환궁하여 공의 유소를 보고 하교하였다.

『국가는 심현에게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는데 절개 지키기를 중신보다 먼저 하였으니 大賢이 아니고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또한 그 아내가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죽었으니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부인에게 정문(旌門)을 내리고 그 자손들을 기용해서 충렬을 표하도록 하라』하셨다.

병자호란은 新生國家인 淸나라가 明나라를 핍박하며 이어 조선에 君臣의 義를 맺을 것을 요구했으나 척화론(斥

和論)의 주장에 따라 요구를 물리치자 淸太宗이 직접 10만 大兵을 거느리고 강화도를 함락하고 인조(仁祖)가 피난한 남한산성마저 함락시킨 다음 삼전도(三田渡)에서 치욕의 和議를 맺으니 이것이 바로 천추의 한을 남긴 국치인 것이다.

회의장소에는 청태종이 세 아들을 앞에 세우고 의자에 앉아 있고 인조는 두어칸 앞에 부복하고 앉아서 태종의 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 번 절하고 머리를 아홉 번 조아리는 항례(降禮)를 올리고야 수치스러운 그 전쟁이 막을 내린 것이다. 이 엄청난 전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다 명을 달리한 것이다.

이 수많은 순국열사 중에 충렬사에 배향된 29위의 영령 앞에 372년 전의 국치를 되새기며 오늘도 엄숙한 마음으로祭를 올리는 것이다.

2008년 11월 20일
 문화부 弘

노을

누구누구 닷할쏘나
 안 보고
 안 듣고
 온통 오염된 세상
 돌아가면 될 것이지



시인 심 황 섭

사람 사는 것이
 거기에서 거기로
 삼시 세끼 안 건너면
 될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소꿉장난인데
 너 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저무는데
 오늘도 지는 해
 저녁 노을 붉게 타는구나.



이사 沈 星 求

조선시대 栗谷 李珥의 경장론과 폐법의 고찰 - ⑤

1. 서언
2. 본론 - 조선전기의 정치적 사회관
 - 1) 율곡의 국가관과 사회사상
 - 2) 율곡의 경장론과 폐법으로 개혁을 주장
 - 3) 파주향약(坡州鄉約)에서 선양(先養) 후교(後教) 강조
 - 4) 율곡의 철학관과 이기심성론의 전개
3. 결론 - 이기치묘의 발전적 원리와 현대적 관점

4. 율곡의 철학관과 이기심성론의 전개

1) 이율곡의 이기심성의 활동

율곡이 이기심성론에서는 율곡의 이기심성론에 관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이기불리(理氣不離)와 一面二, 二面一이다.

둘째, “이기치묘(理氣之妙) … (중략)… 理는 형체가 없으나 氣는 형체가 있으므로 이통기국(理通氣局)이다. 이(理)는 움직임이 없으나 기(氣)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기발이승(氣發理乘)이다. 형체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것이 형체도 있고 움직임도 있는 것의 주가 되니 理이다.”

셋째, “理氣之妙…(중략)…이기일원론기(理氣一源論氣)가 유행하여 들쭉날쭉하고 가지런하지 않으면 理도 유행하여 들쭉날쭉하고 가지런하지 않게 된다. 氣는 理와 떨어져 있지 않고 理도 氣와 떨어져 있지 않으니 理氣는 하나이다.”

넷째, “(理通氣局) 人性이 物性이 아닌 것은 氣局이기 때문이다. 人之理가 곧 물지리(物之理)이니 이통(理通)이기 때문이다. 모난 그릇과 둥근 그릇은 같지 아니하나 그릇 가운데의 물은 마찬가지로, 큰 병과 작은 병이 같지 않으나 병 속의 공기는 마찬가지다. 氣가 근본이기에 하나 인 것이다. 그것은 理通 때문이며, 理가 만 가지로 다를 수 것은 氣局 때문이다. 본체(本體)중에 유행(流行)이고, 流行중에 本體가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예는 율곡 이기론의 특색으로 몇 가지 소개한다.

1. 율곡은 ‘理氣不離’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理主(주재) 氣器(형기)’ 및 ‘氣發理乘’ 역시 이기의 ‘所以然과 所然의 의미’를 중요시 한다.
3. ‘理通氣局’은 ‘이일분수(理一分殊)’와 ‘이동기이(性同氣異)’ 설을 종합하여 말하는 것이며, 특수명사로서 物性의 동이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주자는 理發과 氣發을 말

하였고, 본체론의 측면에서도 또한 인식론의 측면에서도 말하고 있다. 율곡의 이기론은 천지의 변화와 만물생성 그리고 사람의 성정의 문제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율곡의 심성론에 중요한 점은 6가지 중에 6번째만 설명한다.

여섯째 설명은, “인심도 도심은 모두 氣의 발현이나, 氣가 본연지리(本然之理)에 순응하면 氣 또한 본연지기(本然之氣)이므로 理가 그 本然之氣를 타고서 도심이 되며, 氣가 本然之理에서 변한 것이 있으면 역시 本然之氣도 변하므로 理 또한 역시 변한 바의 氣를 타고서 人心이 되어 혹은 지나치기도 하고 혹은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人心과 道心은 모두 性에서 발하는데, 氣에 가리워진 것은 人心이요, 氣에 가리워지지 않은 것은 道心이다.”

이상 여러 예문을 통하여 율곡의 심성론은 그의 이기론으로부터 유래하며, 우리 마음의 작용이란 곧 천지의 조화라는 것이다.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에 있어서, 율곡은 “情으로서 완전히 구비한 것은 사단보다 칠정이요, 情으로서 순수한 것은 칠정보다 사단이다.”라고 한다. 이는 그의 독자적인 논리이다. 이 내용은 주자도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또한 마음이 발하여 “기에 가리워진 것은 人心이요, 氣에 가리워지지 않은 것은 道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주자와 같지 않은 논리이다. 율곡은 이기심성론에서 모든 사람이 이기심성의 원리로 살아갈 것을 논한다.

율곡은 양신(養身)과 양심(養心)을 똑같이 중요시했다. “마음은 본성의 걸 돌레이고, 몸은 마음의 틀 집 구우(區宇)이기 때문에, 몸이 편안함을 얻은 후에야 마음이 보양될 수 있고, 마음이 보양을 얻은 후에야 본성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현의 학문을 익힘에서는 그 뜻을 지니게 된 다음에 그 기운을 보양하여 혈기가 충만하고 완전하도록 하고 잠된 원기가 손상당하지 않게 마음을 보양하는 효과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養身은 양생인 섭생(?生)으로 ‘이기양기(以氣養氣)’이며, 養心은 몸을 수양하여 명을 기다리는 것으로 ‘以氣養氣’이다. ‘以氣養氣’는 음식과 의복 그리고 질병 등 물질상이 수요가 따르게 된다. 율곡 또한 “衣食이 풍족하게 된 후 예의를 안다. 의식족후지예의(衣食足後知禮義)고 하였다. 사람이 의식문제는 인류의 생활 가운데 자연

적으로 심리현상이 요청되는 문제이다. 養氣는 한 사람의 신체와 혈기가 충족되어 형체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하여 순수함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또 ‘以氣養氣’란 이치에 타당하게 養氣함으로써 養心을 돕게 하는 것이다. 養心은 본연의 착한 마음을 보존하려는 것이다. 유가가 말하는 心, 특히 맹자·정주(孟子·程朱) 퇴계와 율곡 등 여러 유학자들이 말하는 心이란 道 본체의 마음인 것이다. 이 마음은 天理와 生理로부터 요청하게 하므로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해준다. ‘以理養心’하여 마음으로 일신의 행위를 주재한다면, 도덕적 理가 氣적 형체인 몸에 세워짐으로써 물질적 생명은 도덕적인 정신생명으로 승화되게 된다. 이러한 생명적 활동인 ‘命’은 천리로서, 천리는 효·제·충·신·인·애(孝·悌·忠·信·仁·愛) 등의 여러 행위로 표출되는 것이다. 율곡이 언급한 民生은 주로 우리의 자신의 본국백성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상황은 비교적 부유한 양반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려운 의식생활로써 유망하는 백성들이었다. 율곡이 언급한 내용들은 바로 당시의 사회현상이었다. 백성이 항산(恒産)이 없고 衣食도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조정에 불만을 갖게 될 것은 당연지사였다. 조정에 대한 불만 역시 그들의 七情 가운데 있는 노, 악, 구(怒, 惡, 懼)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었다. 만일 정치가 순조롭고 여러 관리들이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한다면, 모든 백성은 처신할 바를 얻고 안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할 것이다. 율곡이 폐법(幣法)을 개혁하여 民生을 구제하려고 한 것은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시비지심(是非之心)의 표현으로서 율곡 한 개인의 이기심성을 발현하여 표현한 것이다. 백성이 衣食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염치(廉恥)를 잊어버리게 되며, 그 본연의 착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율곡과 명도(明道)는 천하의 선악은 모두 천리라는 견해로 보는 것이다. 악이라 일컫는 것은 본래 악이 아니며, 단지 혹 과하거나 혹 모자라서 이같이 된 것이라 한다. 율곡은 “하늘 된 소이와 사람이 사람 된 소이와 선한 것이 길(吉)한 소이와 악한 것이 흉(凶)한 소이는 모두 理가 그렇게 하지 않은 바가 없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이른바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 생명을 도와주는 ‘호생지천덕(好生之天德)’으로부터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天理에 의거하여 살 때에 가치가 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만 존엄할 수 있다. 공자가 “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보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제사를 받들 듯이 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율곡이 주장하는 경장(更張)과 혁폐(革弊) 그리고 천민을 양민화하거나 혹은 신분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들은 生理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람들의 행위가 모두 기발이승(氣發理乘)이나 이기치묘(理氣之妙)에 의해 발휘되고 활동이 되도록 하려던 것이다. 이와 같이 되어야만, 사람의 생활과 행위에 가치가 있게 될 것이며, 생명과 인격과 존엄이 있게 된다는 점은 율곡이 주장하고 있는 일면이다. <다음호에 계속>

沈영감 심민섭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기존의 종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靑松沈氏代宗會(02-2267-7857)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 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제작금액	150,000원 (깃대포함: 180,000원)	

물 입

시조시인 심성보
부경대학교수 공학박사

소 먹이는 실개천에
가재랑 눈이 맞아
코뚜레 끌려주고
저녁마저 잊었더니
가재 눈 작다지 마라
골짜물 다 보더라.

지방순회 뿌리교육 안내

2008년도 지방순회 뿌리교육을 청주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교육일시: 2008. 12. 29 10:00 ~ 16:00(5시간)
 ▶ 연락처: 대종회(02-2267-7857)
 청주총회(043-286-7857)
 교재와 점심은 대종회에서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총회 앞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宗 事 消 息

始祖 文林郎公 諱 洪孚(휘:홍부)秋享奉行

10월7일(음 9월9일)



始祖 配位
 初獻:宜洛 龍澤
 亞獻:相稷 相和
 終獻:沈煜 相直
 執禮:宜亮 大祝:相直
 執事:能光 相睦 相海 相守 載澈 相燮

▶祭需獻誠金
 都摠制公宗會:200,000 安孝公宗會:3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200,000 城南宗會:50,000
 原州橫城宗會長 正輔:100,000

三世祖 青華府院君 諱 龍(휘:용)秋享奉行

10월11일(음 9월13일)



青華府院君 配位
 初獻:宜洛 魚澤
 亞獻:宜在 贊求
 終獻:正燮 相弘
 大祝:庚周 光澤
 執禮:相稷 庚周
 執事:相旭 延輔 載求 載澈

▶祭需獻誠金
 都摠制公宗會:100,000 安孝公宗會:300,000
 贊求(副會長):100,000

五世祖 仁壽府尹公 諱 澄(휘:징)秋享奉行

10월15일(음 9월17일)



初獻:晶求 亞獻:鎮植 終獻:喜求
 大祝:相華 執禮:載求 執事:鍾赫 昌輔

六世祖 良惠公 諱 石雋(휘:석준)秋享奉行

10월18일(음 9월20일)



良惠公 配位 14世祖 滄州公
 初獻:晶求 贊求 璋燮
 亞獻:隆求 載烈 仁燮
 終獻:價植 基成 愚成
 大祝:相華 執禮:載求 執事:容圭 載澈

二世祖 閣門祗候公 諱 淵(휘:연)秋享奉行

10월9일(음 9월11일)



閣門祗候公 配位
 初獻:宜洛 承澤
 亞獻:宜台 慶來
 終獻:昌植 相直
 執禮:相稷 大祝:相直
 執事:昌燮 仁求 相國 亮燮

▶祭需獻誠金
 都摠制公宗會:100,000 安孝公宗會:3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200,000 蔚山青松會:100,000
 承澤(예산종회장):300,000 忠州監察公宗會:100,000

四世祖 青城伯 諱 德符(휘:덕부)秋享奉行

10월13일(음 9월15일)



青城伯 配位
 初獻:宜洛 魚澤
 亞獻:暎求 相郁
 終獻:源澤 仁輔
 大祝:相直 執禮:相稷
 執事:載求 載澈

▶祭需獻誠金
 都摠制公宗會:100,000 安孝公宗會:300,000
 鐵原宗會:100,000 信川公派春川宗會:100,000
 暎求(진관동):100,000

六世祖 靖夷公 諱 決(휘:결)秋享奉行

11월2일(음 10월5일)



初獻:석희 亞獻:忠燮 終獻:載玉
 大祝:종옥 執禮:석문

二世祖 奉翊大夫公 諱 晟(휘:성)秋享奉行

10월23일(음 9월25일)



奉翊公 判書公 典書公
 初獻:宜洛 상인 준하
 亞獻:상운 愚夏 해봉
 終獻:相和 상유 석열
 大祝:相夏 執禮:相郁
 執事:상후 載澈 형택 상민 용택 원용

▶祭需獻誠金
 安孝公宗會:300,000

青城伯初配位(清州宋氏)秋享奉行

10월15일(음 9월17일)



清州宋氏 都摠制公
 初獻:宜洛 敏燮
 亞獻:承澤 揆淳
 終獻:相稷 相和
 大祝:玄根 執禮:相昊
 執事:相中 載澈

▶祭需獻誠金
 都摠制公宗會:200,000 安孝公宗會:300,000
 承澤(禮山종회장):300,000

三韓國大夫人 順興安氏 秋享奉享

10월12일(음 9월14일)



初獻:魚澤 亞獻:亨鎮 終獻:相旭
 大祝:光澤 執禮:相稷 執事:載殷 載澈

七世祖 忘世亭公 諱 璿(휘:선)秋享奉行

10월21일(음 9월23일)



망세정공	判書公	8世祖 兵使公
初獻: 晶求	贊求	鍾赫
亞獻: 永燮	相植	求亨
終獻: 愚夏	英輔	春植
大祝: 相華	執禮: 載求	執事: 載澈 昌輔

七世祖 漢城判官公 諱 湍(휘:치)秋享奉行

10월26일(음 9월 끝 일요일)



衿川公	修撰公	監司公	長水公	都事公
初獻: 達燮	亞獻: 仲根	終獻: 種澤		
大祝: 吉燮	執禮: 계섭	執事: 형찬 재철 흥섭		

七世祖 內資寺判官公 諱 浚(휘:원)秋享奉行

11월2일(음 10월 첫 일요일)



初獻: 相烈	亞獻: 相厚	終獻: 龍燮
大祝: 容圭	執禮: 昌燮	執事: 奉燮 仁燮

* 八世祖 敦寧府都正公(諱 順道)
* 九世祖 贈戶曹參議公(휘 巨源)

八世祖 舍人公 諱 順門(휘:순문)秋享奉行

10월17일(음 9월19일)



舍人公	忠惠公	翼孝公
初獻: 永澤	明燮	光澤
亞獻: 상진	康燮	昌燮
終獻: 相英	種福	相汶
執禮: 相稷	大祝: 相直	執事: 載澈 百燮

▶ 祭需獻誠金
夷敬公派宗會: 200,000 春川信川公派宗會: 100,000
忠翼公派宗會: 100,000 光澤(安城): 100,000
양섭(김포): 100,000 영섭(김포): 50,000
舍人公派宗中 誠金
曉窓公派宗會: 10,000,000 忠翼公派宗會: 1,600,000

九世祖 曉窓公 諱 逢源(휘:봉원)秋享奉行

10월29일(음 10월1일)



曉窓公	正字公	一松相公	僉正公
初獻: 鎬元	洪燮	鎬元	興來
亞獻: 庚來	載求	彰來	相直
終獻: 鳳來	光燮	尙來	平來
大祝: 成來	執禮: 相昊	執事: 憲圭 載弘 執事 載求	

九世祖 左議政公 諱 通源(휘:통원)秋享奉行

11월7일(음 10월10일)



初獻: 能心	亞獻: 宜爽	終獻: 洪澤
大祝: 宜英	執禮: 洪燮	執事: 百燮 載澈

10世祖 谷山公 諱 鏞(휘:수)秋享奉行

11월12일(음 10월15일)



初獻: 堯澤	亞獻: 元燮	終獻: 載天
大祝: 載昌	執禮: 容圭	載澈

11世祖 兵曹參判公 諱 友信(휘:우신)秋享奉行

9월20일(음 8월21일)



初獻: 金完洙	蔚山人	亞獻: 盧元來	交河人
終獻: 劉載善	江陵人	大祝: 高在榮	長興人
執禮: 李鍾榮	全州人	掌議: 孔在恩	李相鋪

* 春享日 陰 3월 10일(子孫이 墓前에서 行事)
* 秋享日 陰 8월 21일(儒林들이 彪義祠 神室)

11世祖 信川公 諱 孝謙(휘:효겸)秋享奉行

11월 6일(10월9일)



初獻: 元輔	亞獻: 永澤	終獻: 相汶
大祝: 相弘	執禮: 相燮	

12世祖 郡守公 諱 慣(휘:관)秋享奉行

11월 9일(음 12일)



初獻: 相鶴	亞獻: 昌燮	終獻: 相烈
大祝: 亮燮	執禮: 丞燮	載萬

忠烈祠(28位의 12世祖 諱 沈 說)秋享祭

11월13일(음 10월16일)



初獻: 이서성(江華鄉校典校)		
亞獻: 우광덕(江華文化院長)		
終獻: 권태길(江華仙原面長)		
執禮: 전현순(江華忠烈祠長儀)		
大祝: 金南中(長儀)		

信川 康主簿公(恭肅公養父)秋享奉行

10월19일(每年 陰 9월21일)



初獻: 相弘	亞獻: 康鎮福	終獻: 李載和
大祝: 相直	執禮: 相稷	執事: 容圭 載澈

▶ 祭需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龜尾宗會: 100,000
信川康氏 선산종회: 100,000
德水李氏 옥산공종회: 50,000

江原監營祭 行事 舉行



순력행사(선조 관찰사 7인의 큰 깃발을 든 선발대)

江原道에서는 朝鮮朝 500년 간에 부임하였던 500여명의 관찰사의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년에 한번씩 巡歷行事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리는데 금년에는 10월6일 오후 2시부터 저녁9시까지 그 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巡歷行使라함은 道觀察使가 각 고을을 순찰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피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그 정상을 위로 보고하고 조정의 시책을 백성들에게 하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각 고을의 현감이나 관리들의 선정과 악정에 관한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된다.

이 순행에는 장교와 군관 그리고 도사와 찰방 등의 관리가 수100명씩 함께 뒤를 이었는데 감마교와 수10필의 말이 동원되며 이 때에 악대로는 나팔과 호적 등으로 그 위엄을 세우고 그 뒤로는 원수(元帥)의 대형기(大型旗)를 비롯하여 각종 기를 휘날리며 백여필의 마필과 1000여명의 수행원이 뒤를 따르니 그 위세도 자못 장관이다. 이 행사는 조선조에 있었던 순력행사를 재현하는 행사였기에 江原監司를 역임하신 500여명의 후손들은 각각 선조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행진에 참여하였다.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신 우리 선조는 일곱 분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세

沈詒(후에 判義禁府事, 靑松君), 14세 沈杵(禮曹參判), 17세 沈宅賢(判義禁府事), 17세 沈聖希(禮曹參判), 17세 沈晉賢(禮曹參判), 18세 沈星鎭(工曹判書, 漢城府判尹), 18세 沈鏞(都承旨, 京畿觀察使, 禮曹判書), 위와 같이 7명으로 강원도 관찰사로 역임하신 58 姓氏中 순위가 7번째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더 없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었다.

靑松沈氏原州地域宗會에서는 이날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전에는 理事會를 개최하고, 주체측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행사장에 들어섰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宗人들은 모두 유건(儒巾)을 쓰고 또 관찰사 누구의 후손이라는 꽃 리본을 각자 가슴에 달았으며, 선발대에는 관찰사의 이름이 새겨진 큰 깃발을 앞세우고 늘어선 행렬 선두에 자리하고 행진하였다.

오늘의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새삼 조상님 들의 훈업(勳業)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생각하니 그 先賢들의 높고 깊은 음덕을 헤아릴 길이 없다. 행진을 하는 곳곳에서는 행사를 보러온 1,000여명의 시민들이 갈채와 환호로 맞이하니 三韓甲族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 하루였다.

문화부

존주록 배신열전 (尊周錄 陪臣列傳)

13世祖 각금당 휘 장세(覺今堂 諱:長世)의 전기(前記)

정조 21年(丁巳)에 왕명으로 편찬한 丙子절신 추원록이다.

심장세(沈長世)의 자는 덕조(德祖)이고 관향이 靑松으로 청양군 의겸(義謙)의 손자이다. 천계(明:희종의 년호) 仁祖 2년 甲子에 이괄(李适)이 반란하여 임금이 공주로 몽진(蒙塵)하실 때 장세공께서 포의유생(布衣儒生)으로 어가를 따랐다.

수행 중 공훈이 있어 특별히 의금부 도사를 배명받았고. 정묘호란 때에도 江華島까지 어가를 호종(扈從)하였다. 서기(1637년) 丁丑에 조정이 이미 오랑캐와 강화함에 이르러 長世공께서 세상일을 상심(傷心)하고 고민하여 담론이 격렬하였다.

따라서 그때의 세상에 머물 뜻이 없었으나 스스로 지척의 후손으로서 깨끗한 처신을 할 수가 없었다. 멀리 떠나갈 생각이 때때로 났으나 어명(御命)을 받들어 사은하고, 영천(榮川)의 수령으로 있었으나 홍우정, 정양, 강흠, 홍석 등 네 사람이 太白山에 숨어산다는 말을 듣고 바로 그날로 벼슬을 버리고 태백산 단과동(丹坡洞)에 돌아가서 집을 짓고 현판을 각금(覺今)이라 하였으니 대개 도연명의 뜻을 취함이다.

네 사람으로 더불어 뜻을 맺고 거닐었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그 절의를 높이어 태백오현(太白五賢)이라 말하였다.

조상님 영전에 감사의 절 올리며

심충섭(대중회 이사)

지난 11월 2일(매년 음력 10월 첫 일요일)은 정이공 할아버지 가을 제향(祭享) 날이다. 이날 내자와 함께 제향에 참석하여 아헌관으로 잔을 올리는 영광을 가졌다. 이날은 우리 부부가 중시조이신 6세조정이공 할아버지의 은덕을 피부로 느낀 하루였다.

이날 아침 내자와 함께 경기도 광주 집을 떠날 때는 묘소를 찾는 일이 걱정스러웠다. 새벽 미사 참여 후 8시 성당을 떠나면서 내비게이션에 정이공 할아버지 묘소가 모셔진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를 찍고 무조건 찾아 나섰다.

45번 국도를 타고 용인을 지나 안성시를 향해 가다가장서리로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아침이 먹고 싶어졌다. 마침 길옆에 보이는 '최가네 소

머리 국밥집으로 들어가 아침식사를 마친 뒤 주인아주머니에게 '근처에 청송심씨 묘소가 있는 곳을 아시느냐'고 물으니바로 바로 그 집 창 밖으로 보이는 옆 산에묘소가 있다면서 몇 사람이 와 있다는 대답이다. 너무 반갑고 신기한 마음으로 밖에 나와 보니 '청송심씨 정이공 묘소'라고 새겨진 큰 안내표석이 보였다.

지난 봄에 잠깐 들러 성묘를 한 정이공 할아버지 산소였다. 그냥 지나칠뻔한 순간이었지만 할아버지가 18대손인 우리를 어여뻐 여기시어 인도하신 것 같았다.

'정이공 할아버지가 18대 후손인 우리 부부를 사랑하시어 잔을 이렇게 받으셨다'고 아전인수적(我田引水的)으로 생각하며, 할아버지께 깊은 감사의 절을 올리고 돌아왔다.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권
3. 종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권
4. 제향홀기(휴대용)	30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권
6. 뺏 지		1,000원	()개

▶ 1, 2, 3 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과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주 소			우 편 번 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 ()지점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 ◆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93626(청송심씨대중회)

人事

- 명근 :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장
- 성태 : KB금융주 시너지추진 부서장
- 상섭 : 흥국쌍용화재 본부장 법인영업1겸 법인업무지원
- 泰勳 : KB투자증권 해외영업팀장
- 원무 : 교육과학 기술부 국립과천과학관
- 상열 : 한국기계 연구원실장 겸사역
- 재오 : 스프링 프레쉬코리아(주) 상무
- 재곤 : 융성건설(주) 대표
- 육기 : 국세청 서기관 국세청조사기회과
- 재현 :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장
- 原輔 : 하이트맥주 상무
- 윤수 : 기획조정실 세무회계팀장
- 상정 : 교통안전공단 기획조정본부장
- 혁윤 : 코레일 부사장
- 鴻芳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보훈병원장



誠金 感謝합니다

- 理事會費 -

載求	50,000	2009년분	삼척
在錫	50,000	2008년	송파
載鎔	50,000	2008	인천
相英	50,000	2008	대곶 약암
春輔	50,000	2008	합정동
相稷	200,000	2008	大宗會監事
相燾	50,000	2008	靑松
宜亮	50,000	2009	靑松
良燮	50,000	2008	연천

- 宗報贊助 -

양채종중	100,000	華城市 조암
민섭	30,000	石串洞
斗岩宗會	500,000	光州
용진	30,000	金泉
春燮	200,000	天安
정보	20,000	大田
명수	30,000	堤川
相英	50,000	大串 약암
觀燮	100,000	光州
春輔	100,000	合井洞
麗水沈氏宗親會	100,000	麗水
상윤	30,000	東草
규선	50,000	蔚山
원식	30,000	천안시 성환

5처산소 안내장 제작



성묘시 안내장이 필요한 분은 대중회 인터넷홈페이지 (www.csshim.or.kr)를 찾아보거나 각 지역(청송·안성·청주)의 회관 또는 현지 유사님께 연락주시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① 청송 : 시조산소, 중대산소, 경의재
- ② 철원 : 2세조 봉익대부공 제단
- ③ 함열 : 2세조 남당산소, 산청유허비
- ④ 안성 : 3세조 청화부원군 양위묘소
- ⑤ 연천·청주 : 4세조 청성백 묘소, 청주송씨 묘소

대전 뿌리공원 '청송심씨 조형물' 제막식 거행



▲3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막식 거행



▲조형물 전경

1998년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침산동 산34번지에 뿌리공원을 조성하여 72문중이 각 성씨의 특징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하여 지금은 전국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공원을 조성할 때 큰 문중에서는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뿌리공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 중 우리 문중의 조형물은 왜 없느냐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우리 문중도 그 당시에는 대중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조형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형물의 전면에는 '청송심씨 사적비' 내용을 새겼으며, 후면에는 '가문을 빛낸 분들' '심문의 가장' '작품 해설' '헌성금 종회명단'을 표시하였습니다. '조형물 건립 헌성금'을 납부해 주신 각 종회에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 경과보고 ■

- ① 2004. 4. 18 정기총회에서 대전 종회로부터 우리 문중에서도 뿌리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향후 뿌리공원을 확장할 때는 우리 문중의 조형물을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② 2007년도에 대전 중구청에서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각 문중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 ③ 대중회에서는 2007. 8. 31 조형물 설치를 신청한 후 조형물의 조감도와 청송심씨 사적에 대한 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④ 회장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각 종회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조형물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7. 11. 9 각 종회에 헌성금을 의뢰하여 4,800만의 건립기금을 접수하였습니다.

⑤ 작가를 선정하여 설계도 작성을 의뢰한 후 내부심사를 거쳐 2007. 11. 21 조형물(안)을 확정하였으며, 2008. 3. 13 중구청으로부터 조형물(안)과 사적문(안)을 심의하여 통과되었습니다.

⑥ 2008. 5. 23 조형물 설치에 관한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문중별 설치위치를 추천하여 40번(뿌리공원 중앙부의 최상단)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⑦ 조형물을 2008. 9. 20까지 제작하여 9월 25일 현장에 설치하였으며, 10월 1일 11시 30분 대중회장님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230명의 일가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공	청송	相燾	010-6889-7733
			宜亮	016-9225-3618
2 세조	합문지후공	함열	琿燮	011-676-0892
3 세조	청화부원군	안성	光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주	成輔	019-480-9994
靑松	청송심씨 회관	찬경회관		054-874-3400
			館長 載洪	018-505-7611
淸州	청주회관			043-286-7857



鮮光文化財團 理事長 就任

11월 19일

理事長 沈 晶 求



沈 揆 先

東亞日報 編輯局長 昇進

(10월 31일자)

- 沈局長(大宗會 文化理事 載烈의 長男)은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
- 83년 동아일보 수습기자 입사, 사회부차장 동경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부국장

訃 告

沈相穆(大宗會理事, 前春川信川公派 會長) 10월 27일 오전 강원대부속병원에서 별세
 아들 : 文燮 雲燮
 딸 : 淑姬 明子 順伊

송 금 안 내

찬조금 또는 종보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청송심씨대중회)
- 농 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 2008년 6월 5일자로 신규 개설

청 송 심 씨 대 중 회
 전화 : (02)2267-7857